

세계문화유산 잠재지로서 순천 낙안읍성 일원 당산숲의 경관 특성*

최재웅^{a**} · 김동엽^b · 이창환^c

^a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b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c 상지영서대학교 도시조경인테리어과(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4)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Sacred Dangsang Forests in the Neighborhood of Naganeupseong in Suncheon as a Potential World Heritage Site

Jai-Ung Choi^a · Dong-Yeob Kim^b · Chang-Hwan Lee^c

^a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b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c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 Interior, Sangji Youngseo College,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and culture of the sacred Dangsang forests at Dongnae-ri, Seonae-ri, Namnae-ri, Pyeongchon-ri and Gyochon-ri were investigated. And the potential for registration in the World Heritage List has been discussed by linking the Dangsang forests at the five sites. Dangsang forest, a traditional village forests of rural Korea is a representative cultural heritage with a history of more than several hundred years of Dangsang ritual. The Dangsang forests in the neighborhood of Naganeupseong have retained the landscape of town fortress during Choseon Dynasty and the Dangsang ritual as a living culture. The three villages inside Naganeupseong have kept their Upper Dang, Middle Dang and Lower Dang. There were 21 old trees in total; *Zelkova serrata* (2), *Celtis sinensis* (7), *Aphananthe aspera* (5) trees, *Carpinus tschonoskii* (2) and *Ginkgo biloba* (3). The three Dangsang trees and an old *Aphananthe aspera*, known as to be planted by the Admiral Yi Sun-sin were recognized. The two villages located outside of village fortress also have kept their Dangsang ritual. It is important whether the sites possesses authenticity in order to be listed in the World Heritage. The Dangsang forests in the neighborhood of Naganeupseong have been verified for the authenticity, which should be focused. The places need to be clarified for their landscape features formed as a Dangsang forest, and sustainable protection and management plans are to be devised.

Key words: authenticity, dangsang ritual, dangsang tree, traditional village forest, world heritage

1. 서론

세계유산(World Heritage)은 「세계유산협약」(1972)에 의거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40,000여 농촌마을 중 많은 수가 사라진 전통마을숲인 당산숲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경관으로서 농어촌마을의 핵심경관이다(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5). 수백

주요어: 당산나무, 당산제, 세계유산, 전통마을숲, 진정성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093520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최재웅) 전화: 063-238-2629 e-mail: juchoi0530@korea.kr

년 전 마을 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후, 현재까지 마을주민들에 의해 보전·관리되고 있는 국가적 문화자산이다. 이러한 당산숲의 조성 방식은 민간에서 뿐 아니라, 읍성, 산성 등 행정 관서 관할지에서도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상섭, 2004; 최재웅 & 김동엽, 2005).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그 이후 사회혼란기에 크게 훼손되어 온 당산숲은 규모가 큰 경우 문화재청에 의해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규모가 작거나 알려지지 않은 당산숲은 가치가 인식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런 가운데 당산숲은 최근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주목받고 있다. 이제 당산숲은 전통적인 한국 농어촌마을의 경관을 형성하는 핵심 자원으로서, 그 위상이 정립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대변하고 있는 마을숲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특징을 함께 지니고 있는 복합유산으로서 잘 가꾸어져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국가 유산으로, 나아가 세계유산으로 길이 보전되어야 한다(김학범, 2009).

사적 제302호인 순천 낙안읍성은 조선시대 읍성의 공간구조와 경관미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을 배경으로 그 앞에 관아가 형성되고, 관아 앞으로 백성들의 살림집이 들어서는 전형적인 조선의 마을경관을 형성한다. 현존하는 초가집 대부분이 남서방향의 일자형 삼간집 형태로서 한국 서남부 지방 전통 민가 양식과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도 후손들이 살아가며 마을로서의 기능을 이어가고 있고 낙안군악, 공동체 제의, 판소리 등 무형유산의 전승지로서 그 가치가 뛰어난 유산이다(문화재청). 낙안읍성은 마을을 둘러싼 성곽과 관아, 민가들이 남아있어 조선시대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는 탁월한 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유산적 가치가 있다는 국내의 평가에 따라 2011년 3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성내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 유일한 전통마을로서, 내국인 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즐겨 찾고 있는 명소로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계획도시로서 낙안읍성의 핵심 인프라 시설로 조성된 당산과 당산나무, 당산숲 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높지 않다. 낙안읍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국 전통 문화경관인 낙안읍성 일원의 당산, 당산숲 및 그 문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낙안읍성 일원 다섯 개 마을의 당산, 당산숲과 구성요소를 조사하고 경관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들이 하나로 연계되었을 때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잠재성을 고찰하였다.

2. 연구사 및 이론적 배경

2.1.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성지 관련 선행연구

세계유산 현황을 보면, 총 163개국에 1,031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 중 문화유산이 802건, 자연유산이 197건, 복합유산이 32건이다. 한국의 세계유산은 석굴암·불국사(1995년) 등 12건으로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은 자연유산이고 나머지 11건은 문화유산이다. 한국의 잠정목록은 강진 도요지(1994년) 등 15건으로서, 이 중에서 서남해안 갯벌(2010년) 등 4건이 자연유산이고, 낙안읍성(2011년) 등 11건은 문화유산이다(문화재청). 낙안읍성의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명은 'Naganeupseong, Town Fortress and Village' 이다. 세계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평가항목 i~vi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낙안읍성에 대한 잠정목록 내용을 보면, iii, iv, v, vi항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평가기준을 보면, iii항은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유일하거나 적어도 예외적인 증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iv항은 인류 역사的重要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조물위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v항은 문화(또는 여러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인간 정주지 또는 토지이용의 탁월한 사례로서,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충격에 대해 취약하게 되었을 때 상호작용의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vi항은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행사,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문학적 작품과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낙안읍성에 대한 잠정목록 내용 중 vi항에 대한 설명에서, 당산제(Dangsan ritual)를 'communal rituals'로 표기하였는데, 이것은 마을주민에 의한 제례가 아니고, 관공서에서 행하는 의례로 오해하게 할 여지가 있다. 한편, 세계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성(integrity), 진정성(authenticity)을 갖추어야 하며, 보호·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완전성은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개발, 방치로 인한 부작용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진정성은 당해 문화재의 문화적 가치가 형식, 디자인, 소재, 용도, 기법, 관리체계, 위치와 환경, 정신과 감성 등의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산숲에서의 진정성이란 성스러운 장소와 관련된 것이고, 그 정신,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6>과 같이 주민들의 당산제에 의해 당산, 당산숲은 생

명력이 부여되고 진정성을 보유할 수 있다.

근래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세계유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 명소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관련 연구도 늘고 있다. 세계유산협약 채택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세계유산의 보호는 유형적 요소를 주로 고려했으나, 1990년대 문화경관의 도입으로 무형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무형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 이후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1994)에 의해 유산의 진정성이 재해석되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유산은 유산이 지닌 다양한 속성과 인간의 사상, 신앙까지 그 범위가 다양해졌다(박진재, 2012).

자연성지(sacred natural sites)는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갖는 육상 또는 해상의 지역이다. 유럽은 자연성지의 흔적만 겨우 남아 있을 뿐이지만, 자연성지 개념을 만들고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발전시켜 왔다(Lucas, 1992; Dudley & Lisa, 2012).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2008)은 UNESCO와 함께 6원칙·44지침으로 이루어진 '자연성지 관리지침'을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자연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연성지는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적,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성지(聖地), 성림(聖林)과 관련된 세계유산으로는 Osun-Osogbo Sacred Grove(Nigeria), Sacred Mijikenda Kaya Forests(Kenya), Sacred Sites and Pilgrimage Routes in the Kii Mountain Range(Japan) 등이 있다. 여기에서 Nigeria의 경우는 세계문화유산 평가항목 중 ii, iii, vi에서, Kenya는 iii, v, vi에서, 일본은 ii, iii, iv vi에서 OUV가 인정되었다. 아프리카 2개국은 옛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성스러운 숲에 대한 정신적 믿음, 제례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일본은 옛 수도인 Nara와 Kyoto를 잇는 순례길·숲에, 일본의 종교인 Shinto, 일본의 옛 자연숭배 전통, 그리고 중국·한국으로부터 전래된 불교가 잘 융합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된 연구는 그 유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관광·관광자원으로서의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Wagner, 1995; Anne, 1996; Alison & Richard, 1997; Li et al., 2008; Khlaikaw, 2015). 성림과 관련된 연구로서, Ormsby & Bhagwat(2010)는 인도의 성림을 소개하면서 공동체에 기반을 둔 자연자원관리 전통, 보전 가치,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및 관리방안을 논하였다.

2.2. 문화경관 및 농촌관광 관련 선행연구

문화경관은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세계문화유산위원회(2002)에서는 각 대륙의 문화경관을 소개하면서, 법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경관과 관련된 연구로서, Owley(2015)는 법적인 도구를 사용한 문화유산의 보호방안을 논하였다. Fatimah(2015)는 인도네시아 Borobudur 지역의 문화경관 지속성에 대한 농촌관광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Torquati et al.(2015)은 전통 문화경관으로서의 이탈리아 포도밭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서, 관리비용과 수확물의 균형을 맞추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본의 里山(satoyama)은 팥감 등을 얻기 위해 관리해 온 잡목림(雜木林)이다. 일본은 里山에 대해 일본 전통 문화경관·생물다양성 보전의 의미를 부여하여 왔다(Ichikawa et al., 2006; Indrawan et al., 2014). 그 결과, 유엔환경계획(UNEP)의 생물다양성협약 14차 회의에서 '사토야마 이니셔티브에 대한 파리 선언'(2010)이라는 안건이 채택됨으로써, 일본은 그들의 전통 문화경관인 里山을 전세계에 각인시키며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2.3. 낙안읍성 및 당산숲 관련 연구

낙안읍성의 유형적 시설물과 함께 그 공간에 존재했던 다양한 소리, 냄새, 이야기 등을 복원해 낸다면 그 공간을 보다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할 수 있다. 즉, 무형은 유형의 공간 가치를 극대화하는 힘을 갖는다(김민옥, 2012). 향후 낙안읍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이 요구된다. 진정성과 완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현재 남아있는 기초적 자료를 검증하여 조선 후기 낙안읍성의 공간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정광석, 2014). 낙안읍성 안길은 전체적으로 시각적 투과는 가능하나 신체의 투과는 불가능한 높이를 가진 담으로서 반개방적/반폐쇄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간선도로변에 있는 시장과 노거수 주위에서 주로 장소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곳들은 특정 집단에 의한 소유의식은 없는 장소로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에 의한 휴식과 담화, 상거래, 행정 등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다(국원식, 2002). 낙안의 경우 평지읍성으로서 주산이 괴리되어 있어 수목당산(樹木堂山)을 쓰고 있으며, 전체 고을 형국은 옥여산발형이지만 마을은 배(行舟)형국이다. 낙안읍성 객사 뒤로는 이 고을의 주산인 금전산이 배경으로 위치함으로써 고을의 상징적 축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

상 주산과의 거리가 먼 관계로 객사 뒤편으로 팽나무 거수군(샤머니즘적 제의의 장소로도 쓰임)을 조성하여 비보(裨補)효과를 거두고 있다(박찬용, 2005). 낙안읍성 3개 마을은 당산제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있는 당산의 존재로 말미암아 세계유산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낙안읍성 마을당산과 그 문화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을 맞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핵심 전통문화경관으로 소개되어야 한다(최재웅 외, 2009).

전통마을숲인 당산숲은 마을주민들이 당산제(堂山祭)를 지내는 숲이며 토속신이 살아 있는 마을의 성역이다. 대부분 음력 정월대보름 저녁에 거행되는 당산제는 일종의 물활론(物活論, animism)적인 전통생활문화이다(최재웅 & 김동엽, 2005). 국내 천연기념물 식물 중 63건이 자연성지에 해당된다(김효정, 2012).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명승 제13호)의 수성당(水城堂)을 중심으로 무속인들이 제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당제 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김재웅 & 김승민, 2014). 마을숲은 마을사람들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담은 마을 공공의 장소로 마을문화가 오랜 세월에 걸쳐 집적되어 온 상징적 대상물로서 마을숲 내에는 마을문화를 상징하는 신목(神木), 당집, 정자(亭子) 등 다양한 장식물들이 갖추어져 있는 사례가 많으며, 공원 녹지의 한국적 원형이다(김학범 & 장동수, 1994). 다도해 지역인 한국 남해안과 간만의 차가 있는 강 어귀에 있는 전통마을숲은 생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경관을 긴밀히 연결시키는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Hong & Kim, 2011). 전통마을숲 연구는 그동안 비보숲의 관점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농어촌의 전통마을숲은 당산숲과 비보숲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최재웅 & 김동엽, 2009; 최재웅 외, 2009). 이것은 전통마을숲의 실체를 구명한 것으로서, 2014년에 한국 당산숲의 개념, 특징이 국제적으로 소개되었다(Choi & Kim; 최재웅, 2015).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조사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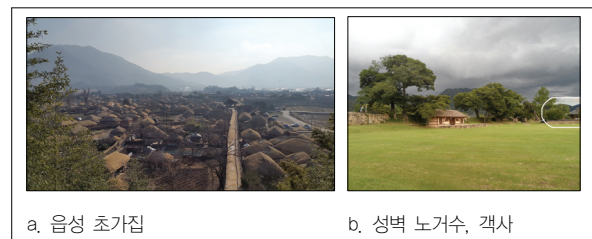
순천시 외곽에 있는 낙안읍성(樂安邑城)은 고려 후기부터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선 전기에

흙으로 쌓은 성이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1424년부터 여러 해에 걸쳐 돌로 다시 성을 쌓아 규모를 넓혔다. 1983년에 사적(史蹟) 제302호로 지정된 이후 1984~2005년까지 성곽 보수 1,410m, 민가 보수 94호 등 보수 복원사업이 이루어져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서내리, 남내리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223,108㎡(성내 135,597㎡, 성외 보호구역 87,511㎡)이며, 108세대(성안 78, 성밖 30), 27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소장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성곽 1,410m와 중요민속가옥 9동이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객사 1동과 노거수 15주가 있고, 도문화재자료로 임경업군수 비각 1동 등이 있다(문화재청; 순천시청).

(그림 1) 낙안읍성 위치도



(그림 2) 낙안읍성의 주요 경관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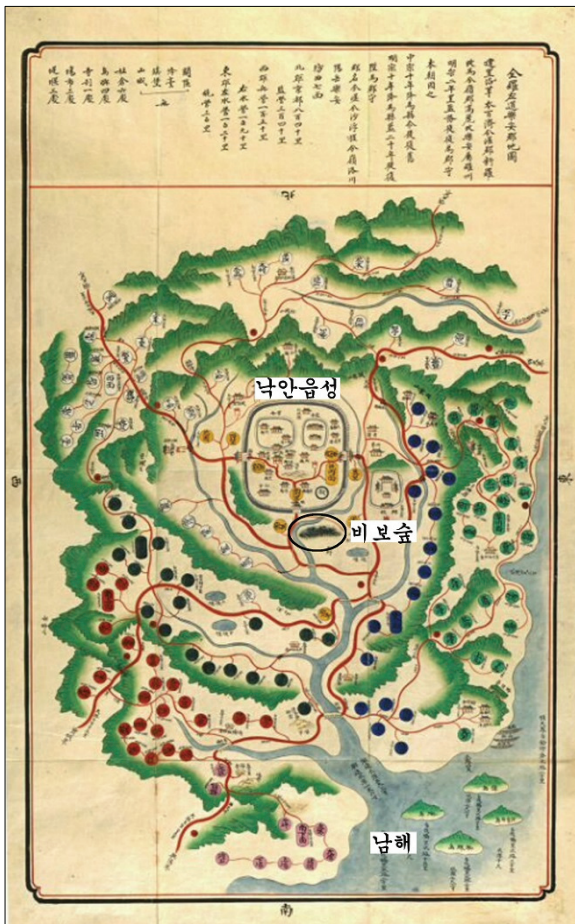
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관찰조사, 관계자 인터뷰 등으로 이루어졌다(표 1). 낙안읍성 안에 있는 동내리, 서내리, 남내리 등 3개 마을은 2009년에 각 마을 상당(上堂), 중당(中堂), 하당(下堂)의 위치를 파악하고 돌탑과 당산나무 등 노거수의 실태를 조사하여 1/5,000 지형도에 표시하였다. 수목의 조사항목은 수종, 그루 수, 흉고직경 등으로서 흉고직경 40cm 이상의 것만을 조사하였다. 고지도(古地圖)와 문헌검색 및 이

〈표 1〉 낙안읍성 일원 당산숲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 음력)

마을	조사년도	조사항목	참고문헌	당산제 날짜 (참관)	면담
동내리	2009, 2012, 2015			*정월대보름 (1회)	
서내리	2009, 2012, 2015			정월초이틀 (1회)	
남내리	2009, 2015	숲 면적, 수종, 흉고직경 등	유네스코 자료, 고지도 등	정월초사흘 (없음)	마을 이장 등
평촌리	2015			정월초이레 (1회)	
교촌리	2015			정월초사흘 (없음)	

〈그림 3〉 전라좌도낙안군지도



장 등 마을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당산의 과거와 현재 모습, 당산제 내력에 대한 고증을 구하였다. 고지도는 성 안의 낙안읍성자료관에도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1872년에 제작된 지방지도인 전라좌도낙안군지도(全羅左道樂安郡地圖)를 참고하였다(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문헌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을 검색하였다. 2012년 음력 정월초이틀에 서내리, 보름에는 동내리 당산제를 참관하고, 마을이장을 면담하였다. 2009년 까지는 낙안읍성 안 3개 마을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으나, 2011년 낙안읍성이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후, 성 밖의 2개 마을도 같이 연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2015년에 평촌리, 교촌리의 당산을 조사하였고, 이때 읍성 안 3개 마을에 대해 보완조사하였다. 평촌리 당산제는 2015년 정월초이레(양력 2월 25일) 저녁에 참관하고 이장을 면담하여 훼손되기 전 숲의 모습에 대한 고증을 구하였다. 이때 이장 등 마을주민들로부터 옛날에 평촌리에 큰 숲이 있었다는 구전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이 전라좌도낙안군지도에 있는 비보숲임을 추론할 수 있었다. 전라좌도낙안군지도에서 <그림 3>과 같이 비보숲을 발견한 것은, 당산숲의 존재 양식이 당산숲 만 있거나, 비보숲과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최재용 & 김동엽, 2010 참조). 교촌리는 당산제를 지낸 흔적만 확인하였다. 지역 유림(儒林)들에 의해 교촌리 충민사에서 열린 충민공추모제는 5월 1일 참관하고, 향교 사무장을 면담하였다.

4. 낙안읍성 일원 당산숲의 경관 특성

4.1. 낙안읍성 내부

낙안읍성 안에 있는 3개 마을은 각각 상당, 중당, 하당을 갖고 있다. <그림 5>에서, 우측의 a, b, c는 동내리의 상당, 중당, 하당을 나타낸 것이고, 가운데 부분은 남내리, 좌측의 a', b', c'는 서내리의 상당, 중당, 하당이다<그림 5>. 낙안읍성내

노거수는 느티나무 4주, 팽나무 7주, 푸조나무 5주, 개서어나무 2주, 은행나무 3주 등 총 21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은행나무 3주, 팽나무 6주, 느티나무 1주, 푸조나무 3주, 개서어나무 2주 등 15주가 전라남도 기념물 제133호(낙안읍성 노거수)로 지정되어 있다.

1) 동내리

동내리의 상당은 객사 뒤 성벽에 있는 당산나무·돌탑이며, 중당은 임경업 장군 비각이고, 연지 옆에 있던 하당은 소실되어, 현재는 당산제를 지내는 장터 옆 은행나무가 하당 역할을 하고 있다. 동내리의 경우, 흉고직경 40cm 이하인 느티나무 2주, 푸조나무 2주를 제외하고 성벽에는 당산나무를 포함하여 11주가 열식되어 있다. 객사와 성벽 사이에는 푸조나무가 있고, 객사 우측에 팽나무 1주가 있다<그림 5>. 이 팽나무 앞에는 현재도 당산제를 지낸다는 안내판이 있다. 이들 13주는 훼손되기 전에는 원래 하나의 당산숲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객사와 성벽 사이의 푸조나무는 ‘이순신나무’로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식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요한 나무인데, 2012년 태풍 볼라벤 때 한 쪽 수간이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다<그림 4a, 4b>. 낙안읍성은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에 속한 곳으로 이순신 장군이 여러 차례 낙안읍성을 방문하여 의병들을 모으기도 하고 군량미를 조달하기도 하였다. 어느 여름 이순신 장군이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낙안군을 찾아 낙안객사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준비한 10년생 팽나무 1주를 객사 뒤편 마당에 기념식수하고 낙안의 유지들과 국운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고 전한다(송갑득, 2006; 현지 안내판). 동내리 당산제는 순천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낙안읍성 민속마을 보존회」주최로 열리고, 서내리와 남내리 당산제는 예산지원 없이 주민들이 지내고 있다. 당산제는 상당을 먼저 하고 나서 중당, 하당의 순

<그림 4> 이순신 나무 현황



a: 이순신 나무(훼손 이전)

b: 훼손

서로 하지만, 동내리는 임경업 장군에 대한 추앙으로 인해 중당인 임경업 장군 비각에 먼저 제를 올리고 나서 상당, 하당의 순서로 진행한다.

2) 서내리

서내리의 상당은 성 밖에 있는 당산나무·돌탑이며, 중당은 동헌 왼쪽의 내아(內衙) 건물 뒤 성벽에 있는 돌탑이고, 하당은 마을 중심부의 돌탑이다. 서내리는 당산나무인 느티나무 1주 외에 팽나무 1주, 푸조나무 1주가 흩어져 있다. 서내리의 동산숲에서, 성벽 안쪽은 대나무숲이고, 성 밖의 급경사지는 상수리나무 등 낙엽활엽수로 되어 있는 자연식생이다 <그림 5>.

<그림 5> 낙안읍성 일원 당산 현황분석도



3) 남내리

남내리의 상당은 동헌 뒤 성벽에 있는 돌탑이고, 중당은 동서로 나 있는 도로가의 돌탑이며, 우물인 ‘큰샘’이 하당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현재의 돌탑은 복원사업을 하면서 새로 만든 것이고 원래는 입석과 고인돌이 그 자리에 있었다. 남내리는 낙민루 앞의 느티나무 2주와 집 담으로 둘러싸여 접근할 수 없는 은행나무 1주가 있다. 당산제를 지내는 장터 옆 은행나무에서는 원래 남내리에서 당산제를 지냈었다. 전라도낙안군지도를 보면 읍성을 외부시야로부터 차폐시키기 위한 비보숲이 성 밖 남내리 앞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그림 3>.

현재 이 비보숲은 소실되어 없으며, 그 자리에 과수원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6〉 낙안읍성 안 3개 마을 당산



장군 위패 앞에서 먼저 제를 올린 후, 김빈길 장군 위패 앞에서 제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낙안읍성은 조선 태조 6년(1397)에 낙안태생의 김빈길 장군이 토성을 쌓았고, 세종 6년(1424)에 석성으로 개축하였으며, 인조 4-6년(1626~1628)에 임경업 장군이 석성을 증수한 것이다.

〈그림 7〉 낙안읍성 밖 마을 당산 및 은행나무, 추모제



4.2. 낙안읍성 외부

1) 평촌리

평촌리의 상당은 위쪽 마을길과 주차장 사이의 공간에 있는 입석이며, 중당은 논 한가운데에 있는 당산나무(팽나무) 1주이고, 하당은 마을 입구에 있는 당산나무(느티나무)이다. 하당은 흉고직경 48cm의 당산나무와 흉고직경 90cm의 팽나무 밖에 없는데, 원래 여러 그루가 있었으나 훼손되어 없어졌고 이전의 당산나무는 오래되어 고사하였다. 이전에는 3곳 모두 당산제를 지냈지만 현재는 하당에서만 지내고, 금줄을 쳐놓은 상당, 중당에는 제물만 묻는다<그림 7a, 7b, 7c>.

2) 교촌리

교촌리는 마을회관 맞은편, 18×18m의 작은 공간에 흉고직경 190cm의 당산나무(느티나무)와 흉고직경 95cm의 느티나무 등 2주 만 있다. 당산숲이 수변림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른쪽 하천까지 이어지는 나무들이 훼손되어 없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5>. 낙안향교 옆에는 임경업 장군을 모신 사당인 충민사가 있는데, 추모제를 지낼 때에는 김빈길 장군도 같이 모시고 있다. <그림 7f>는 임경업 장군 추모제 때, 임경업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따라 낙안읍성 일원 당산 숲 경관의 특성을 구명하고 세계문화유산 잠재성을 고찰한 것이다. 낙안읍성 마을 당산은 3개 마을 모두 상당, 중당, 하당을 갖추고 있다. 노거수는 느티나무 4주, 팽나무 7주, 푸조나무 5주, 개서어나무 2주, 은행나무 3주 등 총 21주로서, 특히 3주의 당산나무와 이순신 장군이 식재한 것으로 알려진 거대한 푸조나무가 현존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읍성 밖 2개 마을도 당산 규모는 작으나, 당산숲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 낙안읍성 일원 당산숲은 조선시대 읍성 경관과 함께 생활문화로서의 전통이 잘 남아있다. 각 마을의 상당, 중당, 하당은 안내판, 팜플릿 등을 통해 시각적, 물리적으로 연결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연계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당산, 숲의 규모는 많이 훼손되어 축소된 것이므로 원형 회복을 통해 생태적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동내리 당산숲 공간의 보전 및 고지도를 통해 확인된 비보숲의 복원을 통해 낙안읍성 일원 당산숲 경관의 특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그림 5>. 세계유산 지정시 유네스코가 중요시하는 장소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당산제에 의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 7>. 순천시청에서는 낙안읍성 일원 당산숲과 당산제에 대해 자연문화유산, 자연성지 문화재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을 세울

〈표 2〉 낙안읍성 일원 당산 실태

마을	명칭	요소	규모	수종, 흉고직경	비고
동내리	상당	당산나무	135×30m (성벽과 객사 사이), 31×12m (객사 우측)	- 성벽 부근 : 느티나무 [*] (135), 돌탑, 팽나무 5주(91), 푸조나무 3주(94), 개서어나무 2주(77) - 객사 부근 : 푸조나무 ^{**} 1주(208), 팽나무 1주(130)	당산숲 면적: 4,422㎡, ^{**} :이순신 나무
	중당	비각	-	-	임경업 장군
	하당	당산나무	14×11m	은행나무 [*] (260)	장터 옆
서내리	상당	당산나무	13×10m (동산숲, 자연식생 - 대나무숲: 155×32m, 낙엽활엽수림: 90×30m)	느티나무 [*] (220), 돌탑	성벽 밖
	중당	돌탑	-	-	-
	하당	돌탑	-	-	-
남내리	상당	돌탑	-	-	-
	중당	돌탑	-	-	-
평촌리	하당	큰 샘	-	-	-
	상당	입석	-	-	-
	중당	당산나무	20×6m	팽나무 [*] (100)	-
교촌리	하당	당산나무	32×20m	느티나무 [*] (48), 팽나무 1주(90)	-
	당산	당산나무	18×18m	느티나무 [*] (190) 느티나무 1주(90)	-

(비보숲 : 소실)

(낙안향교 안 : 은행나무(280))

(^{*}: 당산나무, 괄호 안 숫자는 평균흉고직경(cm))

필요가 있다. 낙안읍성(Naganeupseong, Town Fortress and Village)은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서술 내용 중 당산·당산 숲, 당산제에 대한 서술이 부족한 면이 있다. 낙안읍성 밖 2개 마을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각 마을의 당산 관련 부분의 보완 및 당산숲 경관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관리된다면, 낙안읍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국내외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다면, 활기를 잃고 침체돼 있는 낙안읍성 일원 농촌마을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국원식. (2002). 樂安邑城 안길의 特性에 관한 研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김민옥. (2012). 낙안읍성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3. 김재웅, & 김승민. (2014). 국내 보호지역의 현황 및 세계보호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3), 191-200.
4. 김학범, & 장동수. (1994). *마을숲 : 韓國傳統部落의 堂 숲과 水口막이*. 서울: 열화당.
5. 김학범. (2009). 복합유산 마을숲. *월간 문화재사랑*, 52, 22-25.
6. 김효정. (2012). 한국의 유네스코 자연성지 잠재자원 현황과 특성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유산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1), 492-501.
7. 박진재. (2012). 세계문화유산 제도의 전개 양상과 운영의 추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박찬용. (2005). 한국 읍성의 공간성과 경관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1), 122-131.
9. 송갑득. (2006). 옛 선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전통이 있는 역사의 마을-낙안읍성. 순천: 순천시청.
10. 신상섭. (2004). 전통정주지의 환경적 건전성과 지속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1),

- 27-38.
11. 정광석. (2014). 조선후기 낙안읍성 원형 추정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최재웅, & 김동엽. (2000). 마을숲문화가 있는 농촌 마을숲의 구조 및 보전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3), 51-64.
 13. 최재웅, & 김동엽. (2005). 하천경관으로서 당산숲·마을숲의 경관생태학적 기능 고찰. *환경정책연구*, 4(2), 31-55.
 14. 최재웅, & 김동엽. (2009). 농어촌마을 당산숲의 입지 및 구조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35-47.
 15. 최재웅, 김동엽, & 김미희. (2009). 농어촌마을 당산숲·비보숲의 형태지수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3), 30-38.
 16. 최재웅. (2009). 농어촌마을의 당산숲 구성요소 및 문화에 관한 고찰. *문화재*, 27(1), 188-209.
 17. 최재웅, 김동엽, 김미희, & 박광래. (2009). 순천시 낙안읍성 마을당산의 형태 및 기능에 관한 고찰. 2009년 한국조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90-93.
 18. 최재웅, & 김동엽. (2010). 천연기념물 지정 당산숲·비보숲의 명칭 부여 및 지정 물량 실태 고찰. *문화재*, 43(1), 28-55.
 19. 최재웅. (2015). 한국 당산숲의 특징과 관리 현황-마을숲 통해 한국의 전통 조경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 *월간 ecoscape*, 8월호, 110-113.
 20. Alison, J. B., & Richard, C. P. (1997). Conceptualizing the experiences of heritage tourists : A case study of New Lanark World Heritage Village. *Tourism Management*, 18(2), 75-87.
 21. Anne, D. (1996). Developing a strategy for the Ankor World Heritage Sit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2), 479-492.
 22. Choi, J. U., & Kim, D. Y. (2014).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of Old and Sacred Dangsang Forests in Korea. In S. K. Hong., J. Bogaert., & Q. Min. (Eds.), *Biocultural Landscapes-Diversity, Functions and Values* (pp. 129-142). Dordrecht: Springer.
 23. Dudley, N., & Liza, H. Z. (2012). Protected areas and sacred nature: a convergence of beliefs. In G. Pungetti., G. Oviedo., & D. Hooke. (Eds.), *Sacred Species and Sites: Advances in Biocultural Conservation* (pp. 36-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 Fatimah, T. (2015). The impacts of rural tourism initiatives on cultural landscape sustainability in Borobudur area. *Procedia Environmental Sciences*, 28, 567-577.
 25. Ichikawa, K., Okubo, N., Okubo S., & Takeuchi, K. (2006). Transition of the *satoyama* landscape in the urban fringe of the Tokyo metropolitan area from 1880 to 2001.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78, 398-410.
 26. Indrawan, M., Yabe, M., Nomura, H., & Harrison, R. (2014). Deconstructing satoyama - The socio-ecological landscape in Japan. *Ecological Engineering*, 64, 77-84.
 27. IUCN. (2008). *Sacred Natural Sites,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agers. Best Practice Protected Area Guidelines Series No. 16*. Gland: IUCN.
 28. Khlaikaew, K. (2015). The Cultural Tourism Management under Context of World Heritage Sites: Stakeholders' Opinions between Luang Prabang Communities, Laos and Muang-kaio Communities, Sukhothai, Thailand.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23, 1286-1295.
 29. Li, M., Wu, B., & Cai, L. (2008). Tourism developing of World Heritage Sites in China: A geographic perspective. *Tourism Management*, 29, 308-319.
 30. Lucas, P. H. C. (1992). *Protected Landscapes, A guide for policy-makers and planners*. London: Chapman & Hall.
 31. Ormsby, A. A., & Bhagwat, S. A. (2010). Sacred forests of India: a strong tradition of community-base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Environmental Conservation*, 37(3), 320-326.
 32. Owley, J. (2015).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easements: Heritage protection with property law tools. *Land Use Policy*, 49, 177-182.
 33. Torquati, B., Giacche, G., & Venanzi, S. (2015). Economic analysis of the traditional cultural vineyard landscapes in Italy. *Journal of Rural Studies*, 39, 122-132.
 34. UNESCO. (2003). *World Heritage papers 7, Cultural Landscapes: the Challenges of Conservation*. Pari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35. Wagner, J. (1995). Developing a strategy for the Ankor World Heritage Site. *Tourism Management*, 16(7), 515-523.
 36. http://cmsdata.iucn.org/downloads/pa_guidelines_016_sacred_natural_sites.pdf
 37. http://e-kyujanggak.snu.ac.kr/geo/contents/con_map_list.jsp?c1=02&c2=A&c3=D13
 38. <http://tour.suncheon.go.kr/home/tour/sightseeing/nakan>
 39. <http://whc.unesco.org>
 40. <http://whc.unesco.org/en/criteria>
 41. http://whc.unesco.org/pg_friendly_print.cfm?id=5598&cid=326&
 42. <http://www.cha.go.kr>
 43. http://www.cha.go.kr/worldHeritage/selectWorldHeritageSub.do?mn=NS_04_04_02&hcode=record1
 44. <https://www.cbd.int/doc/meetings/sbstta/sbstta-14/information/sbstta-14-inf-09-en.pdf>
 45. <http://www.cha.go.kr/html/HtmlPage.do?pg=/heritage/>

world_heritage/provisional_list_12.jsp&mn=NS_04_04_02
 46.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charters/venice_e.htm

Received 10 August 2015; Revised 05 September 2015; Accepted 18 September 2015



Jai-Ung Choi is a researcher of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 focuses on Dangsang Forest of rural Korea.

Address: (55365)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anju-gun, South Korea.
 E-mail) juchoi0530@korea.kr
 phone) 82-63-238-2629



Dong-Yeob Kim is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South Korea. Address: (16419)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Natural Science Campus, Seobu-ro 2066, Jangan-gu, Suwon, Gyeonggi-do, South Korea.

E-mail) ydkim@skku.ac.kr
 phone) 82-31-290-7846



Chang-Hwan Lee is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 Interior, Sangji Youngseo College, South Korea.

Address: (26339)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 Interior, Sangji Youngseo College, Sangjidaegil 84, Wonju, South Korea.
 E-mail) chlee@youngseo.ac.kr
 phone) 82-33-730-0794